

서평

김홍순(2021),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 박영사

손정원*

국내에도 행정학/정책학 쪽에서 저술된 기획론이라는 제목의 책들은 많이 있다. 도시계획에서의 계획이론이 행정학/정책학의 기획론과 영어로는 같은 planning theory이고, 그 뿌리도 같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도시계획에서의 planning theory가 행정학에서의 planning theory와 점차 달라져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계획이론 강의에서 행정학에서 나온 기획론 서적을 그대로 교재로 쓰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래서 도시계획가가 쓴 도시계획 고유의 계획이론 교과서가 꼭 필요한 것인데, 본 평자가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북 등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들을 검색해서 찾아보니, 이번에 김홍순의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이 출간되기 전에 나온 책들 중에서 절판되지 않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John Friedman(1987)의 *Planning in Public Domain*의 역서인 『계획이론』과 정환용(2009)의 『계획이론』 2종밖에 없었다. John Friedman(1987)의 책은 도시계획 내부의 논의뿐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이론적 전통들을 계획의 시각에서 정리한 후, 자신의 고유한 이론을 전개한 계획이론의 고전이다. 그러나 이미 30여 년 전에 발간된 책이라 최근의 논의를 담지 못하고 있으며, 책의 성격이 교과서가 아니라 저자의 관점이 강하게 들어간 연구서에 가깝기 때문에 강의 교재로 쓰기에는 적합지 않다. 정환용의 『계획이론』은 한국의 저자가 쓴 책이며, 강의 교재로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쓴 교과서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 또한 12년 전에 간행되어 최근의 논의를 담고 있지는 못

* 런던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j.sonn@ucl.ac.uk).

하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간행된 김홍순의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은 도시계획가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어로 쓰인 교과서로서 현재로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이 책은 저자의 독창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고 꼼꼼하고 충실하게 쓰인 훌륭한 교과서이기도 하다. 198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계획이론들을 충실히 다루고, 그 이후의 새로운 논의들도 계획이론의 틀 안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두루 담았다.

저자는 제1장에서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는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와 긴장관계에 있다. …… 계획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이들 두 가치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고전적인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 들어감으로써, 이 책이 고전적인 계획이론으로부터 출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계획이론의 최근 연구 동향을 보았을 때, 이 책과 같이 기본에 충실한 접근은 꼭 필요하다. 계획이론은 원래 큰 연구 분야가 아니라서, 계속 외부의 이론적 자원들이 수혈되고 있다. 도시계획연구의 폭이 넓은 영어권에서도 계획이론은 1960년대 국가개입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문 분야로서의 도시계획이 부흥하던 시기에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사이버네틱스 등의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끌어들여 기초를 만들었고, 1970년대에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 생겨났던 진보적 분위기를 타고 이론의 다양화를 이뤄냈으며, 1980년대에 John Friedman을 위시한 일부 학자들의 활약으로 어느 정도 이론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소통적 계획이론(communucative planning theory)을 끝으로 계획이론 내부에서는 별다른 이론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 이론을 더 많이 수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이 책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특히 3장은 이 책의 의도가 가장 잘 나타난 부분으로, 책 전체를 읽을 여유가 없는 독자라도 3장은 꼭 읽기를 권하고 싶다.

그러나 완벽한 책은 있을 수 없고, 이 책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글 쓰는 이의 고통을 나눠 가지지 않아도 되는 편하고 쉬운 평자의 입장에서, 저자에

게 몇 가지 지나치다 할 수도 있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책의 방향에 찬성하고 책의 질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계획이론의 현실에 대한 본 평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

첫째로 포스트모더니즘(2장 2절)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아쉽다. 이 책에서는 리오타르나 보드리야르의 이론과 같은 본래의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 개념과,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맑시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이 중 본래의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 특히 보드리야르의 논의 같은 경우, 담론의 세계와 물질적 실체의 차이만을 강조할 뿐,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비롯한 실천적 분야에 주는 함의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계획개념이 도시현실을 개선하는 도구가 되기보다 그 자체가 권력이 되어 도시를 재단하는 경우에 대한 분석, 지배의 도구로서의 도시계획 개념 등을 분석하는 데는 푸코의 지식권력(knowledge-power), 통치성(governmentality)이나 장치(apparatus) 등의 개념이 매우 유용하고, 계획연구에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다. 도시계획과 도시를 주체/대상으로 이분법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극복하고 도시의 복잡한 요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도시계획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에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중저소득국의 계획 과정 연구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개념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연구들을 좁은 의미의 포스트모더니즘, 특히 장 보드리야르의 연구와 한데 묶어 비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하겠다.

그리고 같은 2장 2절에서 소통적 계획이론이 하버마스의 논의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소통적 계획이론 논쟁 초반의 혼선은, 소통적 계획이론을 주창한 John Forester 등이 하버마스의 인식론과 하버마스의 정치철학을 구별하지 않고 인용한 데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소통적 계획이론을 상호주관성에 기초한 초월적 인식론에 기반한 것으로 볼 경우, 도시계획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다룰 여지가 없어지므로 당시 소통적 계획이론에 쏟아졌던 많은 비판들이 모두 타당하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소통적 계획론을 도

출해 낼 경우, 그런 약점들이 어느 정도 극복됨이 이후의 논쟁을 통해 밝혀졌는데, John Dryzek의 최근 저작들이 그 모범 사례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에서는 주로 초기 논쟁을 다루고 있어 아쉽다.

『도시계획가를 위한 계획이론』은 계획이론 밖의 계획이론 연구들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획이론이라는 분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들만 보면 소통적 계획이론 이후 계획이론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계획이론 연구는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계획이론의 중요한 부분인 계획과정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의 일부는 국가론, 도시정치학, 도시지리학, 부동산학 등에서 진행되어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 연구 밖에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 내부에도 건조환경을 생산하는 사회적·제도적 상황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큰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담론과 정책과정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주제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담론이 어떻게 정책이나 제도로 실현되는지에 관한 Maarten Hajer 등의 연구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또한 계획과정 연구가 아니라 하기 힘들 것 같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 발생한 도시계획 아이디어가 다른 도시에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에 관한 정책이전(policy transfer), 정책이동성(policy mobility)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또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계획 내부에서도 관련 문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헌들이 이 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한국 계획 현실에 대한 계획이론적 정리가 부족하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개별 도시계획 사안들을 넘어서는 한국의 계획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들이 존재하는 바, 도시계획 교육 과정 안에서 한국적 계획의 특성을 다루는 것은 결국은 계획이론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국가특성을 다룬 글들이 발전주의국가의 형성과 해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특성 등과 관련하여 많이 나와 있고, 한국의 도시정치를 다룬 연구들이 쌓여가고 있으니 기초연구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주택 레짐을 다룬 김수현의 연구, 지역균형정책의 정치적 과정을 다룬 김동완의 연구, 도시

경관 생산의 정치경제적 배경을 다룬 박배균의 연구, 한국 도시개발의 도시 정치적 특성을 다룬 신혜란의 연구, 여성주의 도시론을 다룬 정현주의 연구, 한국의 국가특성의 관점에서 수도권 계획사를 분석한 주유민의 연구, 소수 민족의 존재가 도시계획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신혜란의 연구, 경제계획과 공간계획의 상호작용을 국가론의 관점에서 다룬 즐고와 최영진의 연구, 국가의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관점에서 국토계획을 다룬 황진태의 연구 등은, 한국의 계획특성을 전체적으로 이론화하는 데 재료로 쓰기에 적절한 연구들이다. 이를 계획이론의 관점에서 정리하여 교과서의 한두 챕터로 넣을 수 있으면 좋을 듯하다.

그러나 본 평자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이 책의 장점들을 가리지는 못한다. 앞에서 지적한 모든 논의를 정말로 다 담은 책이 있다면, 그 책은 지나치게 방대해서 교과서로 쓰이기에는 적합치 않은 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책은 지금 상태 그대로 학부나 석사과정 계획이론 교과서로 쓰기에 좋은 매우 훌륭한 책임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유용한 책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한 저자에게 경의를 표한다.